

고물가 속 먹을거리 불안 ... 친환경 농산물 가격 쟁점

식료품비 서민 허리 툰다

미국산 쇠고기(광우병) 파동에 이어 최근 순천과 화순에서 유통된 콩치통조림과 즉석 냉면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식탁 불안이 고조되면서 고가 친환경 제품 구입에 따른 식료품비 지출이 급증, 서민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고물가속 친환경 유기농 제품의 수요 폭증으로 가격까지 폭등 안전 먹을거리 구입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13일 친환경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학사농장에 따르면 최근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면서 상무지구 직영점의 경우 청정채소, 과일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40% 급증했다.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에서 친환경 농산물 판매율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광주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친환경 채소·과일류 판매량이 11% 가량 늘었다.

E 마트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매출이 전년 상반기에 비해 10% 가량 상승했다. 홈플러스 동광주점은 울상반가와 전년 동기를 비교했을 때 친

환경 채소는 36%, 과일류는 26% 매출이 늘었다. 홈플러스 동광주점은 울상반가와 전년 동기를 비교했을 때 친환경 채소는 36%, 과일류는 26% 매출이 늘었다.

고가 친환경 식자재 구입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쟁점 뛰었다.

농수산식품부 조사결과 올해 국내 친환경 농산물 가격은 일반 농산물보다 49~103%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썬아채 100g 가격은 재래시장에서 1천180원선이지만 친환경 채소 전문업소에서는 4~5천원에 거래돼 재래시장보다 3배 이상 비싸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최근의 '식탁 불안'을 감안, 식자재 구입비 지출이 커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안전 먹을거리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주부 이모씨(50·광주 북구 문화동)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가격까지 덩달아 올라 2~3만원 올리고도 살 수 있는 제품은 많지 않다"며 "식탁 불안 고조로 올리는 친환경 식품 구입을 크게 늘리고 있어 월 평균 지출이 지난해의 2배 가량 된다"고 말했다.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고가 친환경 식자재를 구입해야 하는 중산층 서민들의 부담도 더욱 커지고 있다.

주부 김모(40·광주 서구 풍암동)씨는 "아이들에게만은 좋은 것을 먹고 싶어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고 있지만 부담이 커 연중 행사나 다른 없는 외식도 끊었다"며 "제품 가격이 더 오를 경우 친환경 제품의 소비를 중단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친환경 식자재로 식단 전환을 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공경화 광주소비자 시민모임 대표는 "고가 친환경 식자재의 구입으로 서민들의 식료품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고, 이를 구입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정부가 친환경 제품을 취급하는 대형유통센터 등을 설립해 모든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안전 먹을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만리장성 '올림픽 드래건'

13일 중국 베이징 외곽 만리장성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세계 205개국의 국기를 이어 만든 '올림픽 드래건(Olympic Dragon)'을 펼쳐보이고 있다. 총 길이가 13km에 이르는 이 '올림픽 드래건'은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 '2008베이징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기사 23면>

/연합뉴스

北 현장조사 요구 거부 '금강산 피살' 긴장 고조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발생 사흘째인 13일, 정부가 북한에 엄정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책임을 남측에 돌린 채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나서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항 능력이 없는 관광객에 총격을 가해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한 우리 정부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도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남북 당국 간 금강산지구 출입·체류합의서에 의하면 우리 측 인원의 신체 불가침을 보장하게 돼 있으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를 중지 불구, 총격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고 저항의사도 없는 것이 분명한 여성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조치로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북측은 우리 측의 진상 조사단을 받아들이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당국으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성명은 북측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남측에 있다면서 정부의 현장 조사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북측은 이에 앞서 지난 12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사건 경위가 명백할 뿐 아니라 사고 발생시 현대 측 인원과 함께 현장 확인을 한 조건에서 남측이 조사를 위해 우리 측 지역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선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며 "남측은 이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며 우리 측이 명백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책임을 남측에 떠넘겼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교통흐름 잘 타고 공회전 만 안해도

휘발유 1ℓ 로 16km 간다

너도 나도 치솟는 기름값에 비명이지만 운전습관을 바꾸면 휘발유 1ℓ 로 최고 19km 이상을 갈 수 있으며, 속달되지 않은 사람도 1ℓ 당 16km까지 고연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가 지난 12일 주최한 '로체 이노베이션 고연비 운전대회' 참가자들의 기록이다. <관련기사 10면>

이번 대회결과 고연비 챔피언으로 뽑힌 운전자의 경우 최고 19.64 km/ℓ 를 기록해 도시생활자 평균으로 연간 138만원의 돈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참가자들도 평균연비가 일반주행(11.5km/ℓ)보다 훨씬 높은 16.3

km/ℓ 의 연비를 기록했다. 40%의 기름값이 절감되는 것이다.

비결은 돈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에코 드라이브'다. 요령은 ▲(수동의 경우)기어변속 가능한 빨리 ▲관성을 이용한 정속주행하기 ▲교통흐름 주시하기 ▲급제동 또는 급가속 않기 ▲타이어 공기압 유지하기 ▲불필요한 공회전 안하기 등이다.

전문가들은 "에코 드라이브를 실천하면 전체 주행시간에 큰 변화가 없으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쇠고기 국정조사

오늘부터 38일간 ... 靑 개입 여부 쟁점

'한·미 쇠고기수입 협상'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14일부터 38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 <관련기사 4면>



여야는 이날 9명씩 18명의 국정조사 특위위원을 선임하는데 이어 오는 17일까지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 뒤 다음달 20일까지 협상 전반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인다.

이에 따라 '졸속 협상' 논란을 빚으며 국민의 재협상 요구에 직면했던 쇠고기 수입 협상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위는 다음달 20일까지 국정조사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경우 기간을 연장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며, 조

사기간에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열고 기관 보고를 받는다.

조사대상 기관은 청와대비서실과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등 3개 기관으로 사실상 압축됐다.

국정조사의 최대 쟁점은 ▲협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타결됐는지 여부 ▲최초 협상과 추가협상이 국민적 요구인 건강권과 국가검역주권의 확보를 이끌어냈는지 등에 모아질 전망이다.

또 협상의 책임 소재도 관심 사안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쇠고기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졸속 타결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개입 여부, 실패한 협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겠다"고 예고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광역시 시립의료수가 상해보상과 함께합니다.

장애인 무료치과 진료센터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치과대학병원 2층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 8,500여 원에 장애인 진료...봉사자 사랑을 실천합니다.

☑ 매주 화·금요일 오후 2~4시 진료합니다.

▶ 진료시간: 09:00~12:00 (화·금요일 제외) / 14:00~17:00 (화·금요일 제외)
▶ 진료대상: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지참)
▶ 진료종류: 일반치과 진료, 시술
▶ 문의처: 광주광역시 치과대학병원

광주광역시 치과대학병원